

저시력자와 맹인을 위한 희망 담은 책

《타쉬》 점역판 나와

티베트의 눈 먼 소년 타쉬가 라사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학교를 찾아가기까지 여정을 그린 《타쉬》(샘터)가 점역판으로도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타쉬》는 9살 난 눈 먼 소년이 세상의 따가운 눈총과 멸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꿈을 만들고 소리와 냄새, 촉각 등 또다른 세상을 경험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출판사측은 내다봤다. 이번 점역판은 저시력자도 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워 인쇄했고, 그 위에 전맹인을 위해서 점자로 인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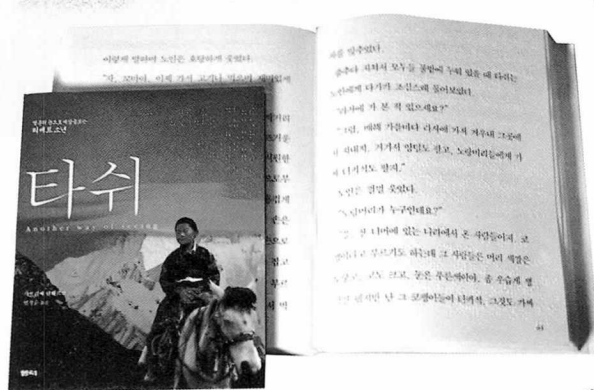
점자책은 시중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점자도서관이나 맹인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시각장애 회원 또는 학생들은 이를 대출받아 읽어왔으며 비등록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이마저도 읽을 기회가 없었다. 점자도서관이나 맹인학교에서 펴내는 점자책들은 대부분 장애인 관련 서적이나 실용서 위주여서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타

쉬》는 일반단행본과 점자책으로 출간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읽도록 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타쉬》는 점역판의 특성상 유통과 보관이 까다로워 시중서점에서는 유일하게 교보문고와 독점계약을 맺어 판매된다. 그러나 전국 지점망에 책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인터넷 주문도 가능하다.

《타쉬》를 펴낸 샘터는 이 책을 서울맹학교, 한국점자도서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등 전국

의 시각장애인학교와 일부 점자도서관, 관련단체·시설에 무료로 기증했다. 샘터 출판부 오연조 부장은 “지은이나 주인공이 모두 시각장애인이고 옮긴이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 이 점자책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부장은 또 점자책 출간은 한 장 한 장 점자를 찍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이번 《타쉬》 점역판 출간을 계기로 문광부, 한국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정부부처나 관련단체들이 후원자금을 조성해 각 단체가 선정할 우수 도서를 점자책으로 출간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출판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장근 기자



시브리에 텐베르켄 지음 | 엄정순 옮김
샘터/A4 변형/102면/45,000원

옥스퍼드대에서 기획하고 사이언스북스가 펴낸 10대를 위한 과학교양서 《어떻게》 시리즈가 12권으로 완간됐다. 1999년에 첫권 《어떻게 양을 복제할까?》(헤이즐 리처드슨, 황우석)를 필두로 출간되기 시작한 이 시리즈는 그동안 첫책이 6쇄를 찍는 등 독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특히 생명·화학·우주·물리·경제 등 각 분야에서 흥미로운 지식을 망라한 것이 특징인데, 타임머신 만들기, 달 여행, 외계인 만나기 등 그동안 SF에서나 봤을 법한 주제들을 알기 쉽게 풀어 쓰고 간단한 실험을 통해 그 실현가능성을 증명한다. 12권 모두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지은이와 번역자가 참여해 각각 96쪽에 불과한 짧은 분량임에도 중요한 화젯거리를 놓치지 않는다.

특히 책마다 앞머리에 실은 <들어가는 글>은 책을 모두 읽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책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정리해 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본문은 예닐곱개가 넘지 않을 분량으로 소주제를 나누고, 일부러 찾아 쓴 듯한 쉬운말과 존댓말로 설명해 부드럽고 속도감 있게 읽힌다. 그림 반, 글 반일 정도로 단순한 그림을 적절

10대의 눈높이에 맞춘 교양과학서

《어떻게》 시리즈 완간



사이언스북스/A5변형/각 96면/각 5000원

히 배치해 긴 글로 설명하는 것 이상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게다가 서너쪽 길러 하나씩 <로켓과학자가 됩시다> <원자 과학자가 되자> 등 실험하는 난도 마련했는데, 집이나 학교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시리즈 각권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타임머신을 만들까?》(헤이즐 리처드슨, 박창범), 《어떻게 달을 여행할까?》(헤이즐 리처드슨, 문신행), 《원자를 쪼갤까?》(헤이즐 리처드슨, 김희준), 《어떻게 로봇을 만들까?》(클리브 기포드, 박종오), 《어떻게 영재가 될까?》(조나단 헨콕, 조석희), 《어떻게 화성을 개척할까?》(클리브 기포드, 변용익), 《어떻게 인터넷을 잘할까?》(이안 루이스, 이용천), 《어떻게 외계인을 만날까?》(클리브 기포드, 맹성렬), 《어떻게 지구를 구할까?》(바바라 테일러, 윤순창), 《어떻게 영원히 살까?》(닉 아놀드, 서유현), 《어떻게 부자가 될까?》(롤랜드 모건, 김병주). —차정신 기자